

# 등돌렸던 이웃들 마주보며 '희망'을 나누다

"4호에 사는 남성이 집에서 집기를 부순 뒤 고의 방화. 지난해에도 한 차례 방화한 적이 있음."(2013년 1월 21일)

"5호 여성이 층간소음피해를 호소. '예들만 아니라면(살을) 포기하고 싶다'고 하소연."(2012년 12월 21일)

"8호 입주인이 9호 할머니의 머리채를 붙잡은 뒤 상가 벽면에 밀쳐 다치게 함. 병원으로 후송됨."(2012년 9월 4일)

"단지 내 전자에서 10호 주민이 숨진 채 발견. 누군가 10호 주민이 맞아 죽었다고 얘기함."(2012년 7월 9일)

이는 광주시 북구 영구임대아파트(1640세대·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에 살면서 일부 입주 주민들이 위협·협박·폭행에 시달린 것을 보고 들은 A씨의 사건·사고 일지 내용 중 한 대목이다.

지난 2012년 4월 5일부터 이곳에서 일어난 각종 사건·사고 내용을 일지 형식으로 써온 A씨

## 1년 새 확 달라진 광주 북구 모영구임대아파트

### 방화·층간소음·폭력 등 하루가 멀다하고 분쟁 발생

는 광주일보 보도 이후(광주일보 지난해 3월 11일자 6면)에도 여전히 일지를 써내려갔다. 하지만, 각종 사건·사고 기록으로 빼곡했던 그의 일지에 언제부터인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 단지 내 전자와 상가는 숲꾼들의 차이였으며, 일부 주민들은 패거리리를 만든 뒤 힘이 약한 주민들을 괴롭히고 협박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현재는 강력사건은 물론 주민들간 마찰도 예전보다 많이 감소하는 등 지난 1년 사이에 아파트 환경과 주민들이 달라지게 됐다. 이는 A

### 주민 16명이 꽃밭 가꾸고 자율방범 등 '작은변화' 시작

씨와 주민들이 직접 일구낸 성과다. A씨등 주민 16명은 지난해 5월 단지 내 공터 99.2㎡에 국화·매리골드·백일홍을 심은 뒤 5개월간 정성스럽게 키웠다. 이후 이들 주민들은 정성스레 가꾼 꽃을 화분에 옮겨 담아 같은 아파트에 사는 독거노인 등 300명에게 전달했다.

꽃밭을 가꾸고 화분을 만들어 나누는 주민들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을 공유하게 되면서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스스로를 바꾸면서 아파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실천에 나서기 시작했다. 시의원·구의원·경찰관·소방관·주민 등으로

구성된 거버넌스위원회도 주민들 간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법을 제시해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줬다.

이들은 올해 자율방범대와 분쟁해결위원회(층간·이웃 갈등)를 구성, 단지 내 순찰을 돌면서 잘못된 일을 개선하는 등 서로 외면하고 적대시하는 분위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들은 복지발전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난해 실시한 입주인 실태조사결과를 토대로 취약계층을 선정,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계획이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익숙해진 이들에게 돌려주는 법을 알려줌으로써 자립의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아파트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 전환점이 온 것 같다. 서서히 주민의식을 갖게 된 것 같다"라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아파트를 위해 땀을 흘려야겠다는 의식이 생긴 게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조선족 학교에 한글도서 보내

광주시교육청과 한민족책나눔운동본부는 12일 광주시 동구 옛 지원중학교에서 조선족 민족학교에 1만여권의 한글도서를 보내는 '한글도서 환송식'을 열었다. 한글도서는 지난해 11월 광주지역 초등학생들이 기증한 것으로, 중국 랴오닝성 신화초등학교 등 22개 조선족 민족학교에 보내진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전남 교권침해 심각

### 학생·학부모들 폭언·협박·폭행 등 작년 17건 발생

협박과 막말, 심지어 폭행까지... 광주·전남지역 교단에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내놓은 '2013년 교권 회복 및 교직상당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지난 한 해 17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건, 전남이

10건이다. 광주에서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학부모나 학생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2건, 교직원간 갈등이 1건이었다.

전남에서는 학부모·학생에 의한 폭언·협박·폭행 피해가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3건, 명예훼손 1건, 교직원간 갈등

1건 등이다. 광주와 전남을 합하면 폭언·협박·폭행에 따른 침해가 7건으로 가장 많다. 교총은 학생지도에 대한 불만이거나 경미한 제벌에 대한 급품 요구나 사적 요구, 폭언 등이 여전하고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나 인근 주민들의 부당한 요구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실제 전국적으로도 394건의 피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당 전보나 권고 사직, 재임용 거부, 수업권 배제 등 부당한 처분으로 인한 신분상 피해도 광주 4건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92건(24.6%)에 달했다.

교육부 자료에서도 이 같은 경향은 뚜렷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 1학기까지 광주·전남지역에서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는 광주 842건, 전남 394건 등 모두 1236건에 달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2010년 19건에 불과했

던 교권침해 사례가 2011년 209건, 2012년 487건, 2013년 상반기 127건 등으로 급증했다.

이는 일선학교에서 선도위원회를 면 뒤 교육청에 보고한 건수만을 집계한 것이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무마한 건수까지 합하면 교권피해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 침해 사례가 급증해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명퇴 증가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47분 | 해질 18시 38분 | 달출 15시 36분 | 달몰 04시 27분

#### 미세먼지 '보통'

비 오다 오후들어 점차 그치겠다.

광주	흐리고 안개	6/8℃
목포	흐림	6/7℃
여수	흐리고 안개	8/9℃
나주	흐리고 안개	6/8℃
완도	흐리고 안개	6/9℃
구례	흐리고 안개	7/8℃
강진	흐리고 안개	6/9℃
해남	흐리고 안개	6/9℃
장흥	흐리고 안개	6/9℃
순천	흐리고 안개	8/6℃
영광	흐리고 안개	5/6℃
진도	흐림	6/7℃
전주	흐리고 안개	5/8℃
군산	흐리고 안개	4/8℃
남원	흐리고 안개	5/8℃
익산	흐림	5/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11.7℃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11.7℃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1.7℃	관심	보통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2.5m	11.7℃	관심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11.7℃	관심	보통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날씨						
최저/최고	1/10	0/13	2/16	3/15	5/16	8/13

## 노숙 탈영병 도심상가 털다 붙잡혀

광주북부경찰은 12일 부대를 탈영한 뒤 노숙생활을 하면서 도심 상가를 상습적으로 털 현의(특기법상 정도)로 구모(26·부산시) 이병을 붙잡아 31사단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 이병은 지난 10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A식당에 침입한 뒤 금품을 훔치려다 잠을 자던 주인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는 등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134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

를 받고 있다. 구 이병은 지난 2011년 9월 26일 군 부대를 탈영한 뒤 도괴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구 이병은 지난해 광주에 내려온 뒤 영업을 마친 빈 가게에 몰래 들어가 숙식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 이병은 경찰에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검찰, 의붓딸 성폭행 40대 친권 상실 청구

검찰이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 대한 친권 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 광주지검 형사 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12일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친권상실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집에서 자는 의붓딸(당시 11)의 가슴을 만지는 등 4년간 5차례에 걸쳐 성폭행 또는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가 친딸이 아님에도, 자신의 자식이라며 입양, 친권을 행사해왔다.

/김지윤기자 dok2000@kwangju.co.kr

**유생존 무한리필**

**OPEN 30년 전통 돈까스**  
SALAD & PASTA COOK

Since 1983 **유생존**

**유·스퀘어점**

**즉석요리**  
얼리지않는 생돈까스  
30년의 노하우

샐러드 & 돈까스  
스파게티, 탕수육, 미트볼  
제육볶음, 치킨, 생선까스

유생존 무한리필  
돈까스  
성인..... 10,900  
초등학생..... 7,000  
소인(미취학)..... 4,000  
음료..... 무한리필  
(콜라, 사이다, 워터, 주스)

·프리미엄화상급 삼겹살  
·풍부한 육즙  
·부드럽고 아삭이러한 맛  
·술안락기스화자만 허브 숙성  
·친환경 무농약 신선한 재료

유·스퀘어점 ☎ 062) 671-1199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구.아이엘리시아)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 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뛰어난 열전도성, 층간 중량 충격음 방지, 다양한 바닥재 연출, 알맞은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테코타일(익사각형), 테코타일(정사각형)

(주)금융건설 InstaFloor  
SGS, UKAS, SGS, UKAS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